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각 부문별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
-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1월 2일(목) 오후 1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의 개최식 및 시상식과 2부의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각 분야별 공적자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위하여 유공자 시상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4년 만에 전국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담당자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 내 장애인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건강보건관리사업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실무자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용수기 대상 : 2개 부문>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움만 받고 살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 중증 지체장애인이 그동안 가족의 도움만 받고 살다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패널, 위원 참여 등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경험
- (장애인건강주치의) “희망과 기쁨의 끈을 잡고 일어서다”
 - 중증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희망을 찾은 경험

- < 붙임 >
1.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요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개요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 주요내용
 4. 대국민 이용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담당 부서 <총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담당자	서기관	이유정 (044-202-3188)
담당 부서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아 (02-901-1605)
		담당자	사무관	조순미 (02-901-1601)
			주무관	임현정 (02-901-1615)
			주무관	안은성 (02-901-1656)
		주무관	박새별 (02-901-1698)	



□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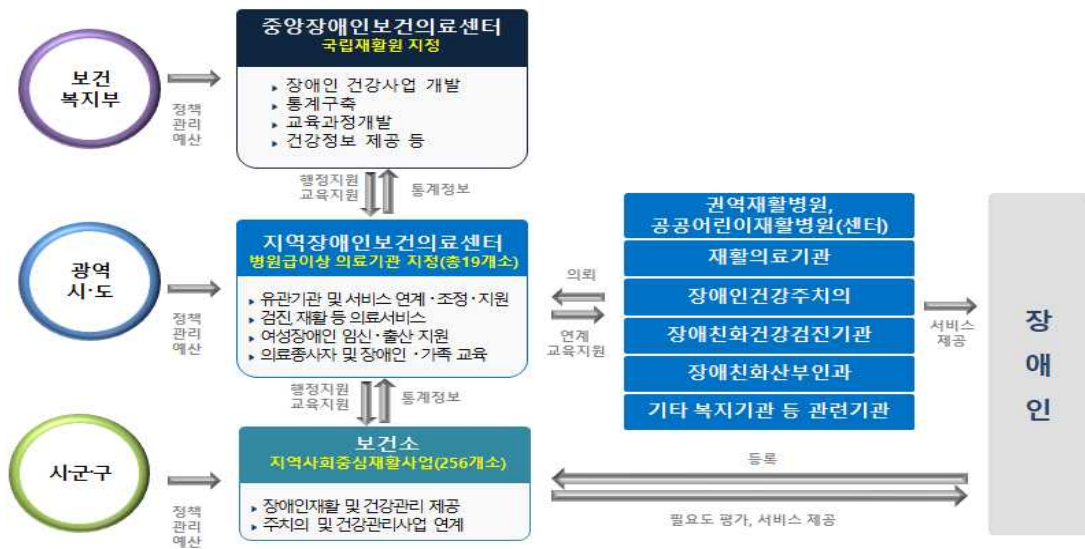
- (일시) 2023. 11. 2.(목), 13:00~17:00
-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 (주최 등)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립재활원
- (참석) 보건복지부, 시·도 및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 병원, 의료재활시설 등 관계자,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등 500여 명
- (주요내용)
 - (시상) ①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유공, ②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③대국민 이용수기 공모전
 - * (규모) ①활성화 유공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5점(개인 23점, 단체 2점)
 ②우수사례 공모전 : 보건복지부장관상 24점, 국립재활원장상 11점
 ③이용수기 공모전 : 보건복지부장관상 6점, 국립재활원장상 17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 4점
 - (논의) (발표) 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방향 및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협력방안 등
-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3:00~13:25 ('25)	등 록	
1부 : 개회 및 시상식		
13:25~13:30 ('5)	개회선언	사회자
13:30~13:35 ('5)	개 회 사	강윤규 원장 (국립재활원)
13:35~13:40 ('5)	기 념 사	송준현 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3:40~14:50 ('70)	포상 및 기념촬영	수상자
14:50~15:00 ('10)	휴 식	
2부 : 사례발표 및 발전방안 논의		
15:00~15:20 ('20)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방향	이유정 서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15:20~15:50 ('3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발표1)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발표2)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발표3)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담당자
15:50~16:20 ('3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내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 협력 방안	이규범 센터장 (서울특별시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6:20~16:50 ('30)	종합토론	
16:50~17:00 ('10)	폐회 선언 및 안내	

붙임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으로 조기사회복귀 지원
- (내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중심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와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 제공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에 설치되어 지역전달체계 총괄·지원, 건강보건통계·연구·정보 제공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지원,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 전국 17개소)
- (보건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수행, 전달체계 내 최일선 기관으로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전국 258개소)
- (유관기관) 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붙임 3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 주요내용(요약)

분야	지자체(개인) (사업명)	주요내용
<p>우수 프로그램 (최우수상)</p>	<p>대전시 유성구보건소 (몸건강, 마음건강” 삼색(三色) 재활 유성 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주요성과) 지역 유관기관(지역센터, 장애인체육회, 복지관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별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
	<p>경기도 광주시 (원스톱 재활 건강 거버넌스 구축 『하미음 재활 건강서비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민·관·학 장애인 재활-건강 업무협약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방문재활지원, 운동교실, 숲탐방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주요성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장애인의 전문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재활의 연속성 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만족도 제고
	<p>서울시 노원구보건소 (장애인 재활! 사각지대 없는 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거점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9개)을 확보, 유관기관 연계(지역센터, 체육회, 주간보호센터 등)하여 운동프로그램·건강(진료) 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지원 •(주요성과) 생활권역별(노원구내) 복지기관 연계,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도모
	<p>인천시 부평구보건소 (부평구엔 장애인의 처음이 있다.(예비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등록(예비장애인) 대상, 장애발생 초기에 전문인력 연계하여 맞춤 전문 서비스 제공, 이동가능한 장애인 대상 재활운동, 요가·난타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주요성과) 장애초기부터 지역 내 전달체계 구축하여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촉진 및 자립능력 증진
	<p>인천시 연수구보건소 (재활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고혈압, 당뇨등 기초 건강관리·재활운동·방문재활서비스 등 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주민참여 및 정서지원을 위한 치유정원교실·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성과) 장애인의 요구를 공감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기초건강관리 능력 및 일상생활동작 능력 향상, 고위험 우울감 감소 등 건강상태 개선
	<p>경북 영천시보건소 (말타go 공치go 활력 up」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지역특성 반영한 지역의 운동 및 문화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재활승마 제공 및 배드민턴 교실 운영(지적발달 장애인을 대상) •(주요성과) 재활승마 참여 후 체중 및 체지방률이 감소하여 신체기능이 향상, 스포츠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배드민턴 운동을 통해 일상의 활력과 보람 제공
	<p>충남 홍성군보건소 (장애인 자기건강관리 “내가 만드는 건강한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ICT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 재활운동 교육, 영양·비만예방 교육, 구강관리, 지역자원 연계참여서비스(지역명소탐방, 원예체험) 제공 •(주요성과) 내외부 자원연계 및 건강문제별 멘도를 지정하여 보건소 내소를 유도함으로써 재활공백 최소화 및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라 자가 건강관리 지속
	<p>경남 사천시보건소 (찾아가는 올인원 [ALL-IN-ONE] 방문재활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재활운동, 영양·연하장애 훈련 등, 가옥내 편의시설 제공)/ 주간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관내 주간보호센터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요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건강행태개선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p>부산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돋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건강상담,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지원, 검진후 자가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건강검진 방문전 필요서비스 파악,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주요성과) 정부정책에 맞게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서 가교 역할 충실

<2023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수기 공모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 대 상 -

성명	권○○
이용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응모부문	장애인 본인
제 목	도움만 받고 살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저는 강원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올해 44살 권○○입니다.

1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수 손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중증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 학창 시절에는 태권도 선수로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해보고 군대에서는 유격 조교로 빨간 모자를 쓰고 올빼미들을 괴롭히는 악당이 되었으며 미국 영화 '람보'에서 람보가 사용하는 10kg이 넘는 M60기관총 사수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대 후에는 막노동과 1톤 탑차를 타고 장사도 해봤으며 안경렌즈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사고 이전엔 저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이었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저는 좌절하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냥 사고 나던 순간에 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재활하는 동안 어머니는 저를 돌보기 위해 작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쪽잠을 주무셔야 했고, 아버지는 태백에서 수도권까지 저희를 보기 위해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저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별다른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고 문턱을 제거한 집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병원과 환경이 많이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반경이 줄었고, 결국에는 제 방에서 그냥 밥만 축내고 게임이나 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내 힘으로는 대소변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돌봐주시던 어머니께 특하면 신경질 부리고 살았으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돌봐주시던 어머니가 허리에 무리가 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게 된 이유의 90%는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저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동휠체어, 리프트 등 기술이 발전하여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생겨 있었고, 그것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백시보건소 주무관님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을 만나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로 조작하는 조명, 블라인드 등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주셔서 매번 누군가가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싶어도 자는 가족을 깨우기 미안해 참은 적도 많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집안에서의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차량 예약/이동, 휠체어 접근 가능성 유무 확인 등 하루 동안 보호자의 도움과 모든 시간을 쏟는 과정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세미나' 패널 참여와, 강원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회'에 위원으로 함께 자리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저나 다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같이 생각해주고 소통해 나가는 기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 지역에서 많은 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현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은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손발도 못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했었고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에도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시작해볼 용기도 없었으며 한다고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선생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이 용기와 도움을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10년이 넘게 방구석에서만 누워 쓸모없이 살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 우리나라에 그동안 몰랐던 제도도 많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밖으로 나와서 용기를 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수기 공모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 대 상 -

성명	오○○
이용기관	○○의원
응모부문	장애인 본인
제 목	희망과 기쁨의 끈을 잡고 일어서다

어느날 찾아온 낯선 사람의 손을 잡기까지...

저는 중증 시각 1급 장애인인 오○○입니다. 23살에 뇌종양 말기환자로 10년 동안 누워있다 33살에 뇌수술 3번 만에 살아났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어 모든 관절이나 장기가 거의 소실되어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척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급성 당뇨와 허리디스크, 협착증, 무기력함, 우울증 등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잃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치의 서비스를 받기 전 4년 동안 물리치료, 침, 뜸, 약, 많은 것들로 세월을 보냈으나 한곳이 좋아지면 다른 곳이 나빠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삶이 이어지다 보니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져 너무 슬프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갑자기 오더니 합병증까지 생겨 밤낮없이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쭈셔서 견딜 수가 없었고, 거의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합병증이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한숨과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증과 어두움과 절망에 갇혀서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하루종일 통증과 씨름해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 복지관 선생님이 가정방문 주치의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도 만성질환이라며 처방전과 물리치료, 뜸이 전부였고 별로 할 것이 없다고 하시니 병원도 제게는 그리 큰 위로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덩동 하며 누군가 벨을 눌러 열어보니 웬 낯선 사람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원의 ○○○원장입니다. 이분은 간호사님이시고 저희는 가정방문 주치의입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활동 도우미 선생님과 복지사 선생님 외에는 오시는 분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오시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게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뵙고 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오셨다면 그간의 제 사정과 건강상태 통증 등을 봐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인생의 3막이 가정방문 주치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비타민 주사부터 놔주시고, 당뇨식과 운동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몸이 반응한다며 서두르지 말고 살살 움직여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활동보조 선생님 도움을 받아 매일 병원에 가서 허리와 다리, 교정과 물리치료, 허리·무릎에 주사를 맞고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하루가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누워만 있던 제가, 통증에 묶여 갇혀 있던 제가 어느새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몸이 좋아졌고, 관절과 허리의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제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헛발을 짚어, 걷지도 못해 주치의 선생님께 전화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간호사님과 함께 한걸음에 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주 동안 치료해주시고 무릎에 맞는 주사와 처방을 해주셔서 한 발짝도 못 딛던 제가 지금은 계단도 오르고 외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낯선 방문이” 제 인생을, 제 삶을 바꾸어주셨습니다. 비틀비틀, 더듬더듬 제 모습이지만 통증에 어둠에 갇혀 누워있기보다는 통증이 없어지니 걸음이 걸어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제 삶이 변하고 제 희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만나는 장애인마다 제가 이렇게 달라졌음을 알려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삶에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전 건강주치의 가정방문 주치의를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지금 주변에 8~9명 정도의 장애인이 가정방문 주치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해주신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합니다. 제 삶에 변화를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장애인들에게 갑니다. 낯선 방문자를 소개하려고요. 그들을 만나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해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국립재활원 파이팅! OO의원 OOO원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